곁에서 본 큰스님의 삶과 수행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1, 2' 원택 스님 지음

암자에 철망을 두르고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산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스님, 수십 년 간 눕지 않고 철저한 수행을 한 스님, 거침없는 경책 때문에 선방 수좌들에게 '가야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스님, 삼천 배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만나주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스님. 성철(전 조계종 종정) 스님을 두고 하는 말들이다.

이러한 스님의 삶과 수행, 가르침과 깨달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성철스님 시봉이야기〉(전2권, 김영사)가 나왔다. 지은이는 성철 스님 곁에서 20여 년을 시봉했던 원택(조계종 총무부장) 스님.

이 책의 미덕은 다소 딱딱한 법문으로 만났던 성철 스님을 시자의 시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원택 스님이 기억을 더듬으며 담담하게 써내려간 시봉이야기들은 법문을 넘어 감동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누구나 성철 스님처럼 살아가면 위대한 인간, 깨달은 사람으로 성철 스님과 꼭 같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싶다." 이것이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이유다. 이 이야기는 이미 중앙일보에 '산은 산, 물은 물-곁에서 본 성철스님'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연재됐었다. 값 각권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감동과 깨달음 있는 선사일화

'한생각 열어주는…' 김기석 엮음

한 객승이 뜰을 거닐다 선정에 든 선사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무엇을 일러 도(道)라 합니까." 뜰에 핀 작은 풀꽃들을 바라보며 스님이 말했다. "무심(無心)이 바로 도라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네가 할 일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는 일이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네지."

〈한 생각 열어주는 108가지 지혜〉(미래문화사)는 선승들의 지혜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스님이 왕을 맞이할 때는 앉아서 하고, 왕의 하인이 오자 깍듯이 일어나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배우는 '수중한 방문객을 앉아서 맞는다'를 비롯해 '못된 성질을 내놓거라' '마음속에 지닌 생각으로 본다' 등 인간관계에 편견을 없애고 감동을 주는 선문답 108가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인간복제시대 인류의 나아갈 길

'과학 종교 윤리의…' 최재천 엮음

인간 복제 등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달로 과학이 신의 영역에까지 다가선 이 시대에 사는 과학자들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하는가.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최재천 엮음, 궁리)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과학 종교 윤리학자들의 성찰을 담고 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식지인 '자연과학'에서 특집으로 다룬 내용을 토대로 꾸민 것이다. 자연과학은 물론 종교학, 윤리학, 철학, 인문, 사회과학 등 관련 분야 교수 22명이 환경 윤리, 인권문제, 국가 정책, 시민운동, 과학과 종교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한다. 그렇다고 섣부른 결론이나 상투적인 화해를 끌어내지는 않는다. 상호간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각자 처한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힌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사랑은 모든것과 함께 있다

'첫사랑은 맨처음…' 틱낫한 스님 지음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나무심는사람)는 스님, 시인, 평화운동가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틱낫한 스님의 첫사랑 고백서다. 하지만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속엔 사랑을 수행의 바탕으로 삼은 깨어있는 영혼의 소리가 들어 있다.

틱낫한 스님의 첫사랑은 24살 때 베트남 원각사에서 한 비구니 스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스님은 비구니 스님을 보는 순간 "신선한 미풍이 얼굴 위로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들었다. 전에도 많은 비구니 스님을 보았지만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둘러 표현하기 위해 밤새 설명한 것, 비구니 스님이 준 한 알의 약 이름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던 날의 일 등 첫사랑의 모든 일들을 모두 털어놓는다.

이 사랑 이야기는 스님이 매일 아침 제자들에게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을 강의하면서 들려주었던 내용들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틱낫한 스님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똑같은 열병을 앓게 될 젊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으로 강의의 반 정도를 할애했다.

'틱낫한의 첫사랑과 대승 경전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사랑 이야기와 경전 이야기가 한번씩 번갈지만 별개의 것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승 경전의 내용을 첫사랑의 이야기로 녹여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것은 사랑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감정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랑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물의 본질도 꿰뚫을 수 있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꽃 한 송이가 햇빛과 물과 흙, 시간, 공간 같은 꽃 아닌 요소들만으로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한 송이 꽃을 통해 태양과 온 우주를 만나게 되듯이, 사랑을 깊이

사랑을 수행방편 삼은 틱낫한 스님 첫사랑 얘기

들여다볼 때 그 안에 깃든 다른 모든 것과의 연관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사랑이야기가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첫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으며, 그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있게 참구하는 것이다. 스님은 말한다. 당신의 첫사랑은 당신의 맨 처음 사랑도 아니고 맨 나중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 함께 있는 사랑이다. 이처럼 이 책은 사랑과 경전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대승불교가 흘러온 길에서부터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등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상(無常)에 관한 설명을 보자.

"꽃 한 송이가 시들어 죽어갈 때 여러분은 슬픔에 젖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꽃이 무상한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무상함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되지요. 여러분이 만일 무상함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상함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은 적극적이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집니다. 무상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상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이 외에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에 대한 설명, 번뇌를 사르기 위한 통찰, 또 마음 모으기 수행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 등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교를 알려면 부처님을 보라

'내가 본 부처' 도법 스님 지음

도법(실상사 주지) 스님이 조계종 행자교육원에서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담은 〈내가 본 부처〉(호미)가 나왔다.

스님은 '부처님이 곧 불교'라고 이야기한다.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부처님을 제대로 알면 된다는 이야기다. 불교의 출발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 까닭은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불교 사상과 정신의 근본이며 실현해야 할 최고의 수행자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불교 수행자들의 모습은 이와 반대라고 꼬집는다. 대접받으려 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도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스님이 말하는 우리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불교는 부처와 멀어져 온갖 문제와 폐단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상적 정체성에 대한 무지라고 스님은 잘라 말한다. 곧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는 불교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교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살피지 않는 데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행자들에게 말한다. 싯다르타가 걸어간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스님은 우리 생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파괴를 비롯하여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또한 부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이 책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흔히 부처님의 생애를 탄생, 사문유관, 출가, 수행, 성도, 전법, 열반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지만 도법 스님은 이러한 시간적 나열을 넘어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출가행자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준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제주섬아 사랑해(박승룡 지음, 우리글 刊)= 여행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승룡 시인의 수필집. 한라산 관음사를 시작으로 제주의 대표적 명소를 여행하며 느낀 단상을 북제주, 서귀포, 남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시와 함께 실었다. 또 교통과 숙박 안내에서부터 박물관, 축제 등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여러 정보를 부록에 싣고 있어 가이드 북으로도 활용할 만하다. 값 7천5백원.

▲문명왕후 김문희(전3권, 김지수 지음, 삼진기획 刊)= 태종무열왕(김춘추)의 아내이자 김유신의 누이이며, 문무왕의 어머니인 문명왕후 김문희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뿐만이 아니라 삼국통일의 숨은 주역이 되기까지의 문정황후의 열정적인 생애를 담았다. 하지만 이 소설의 초점은 황후의 삶이 아니다. 여성을 위한 선언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이 소설에서 읽어야 할 것은 바로 여성성의 개화다. 값 각권 8천원.

▲나의 눈(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문진희 옮김, 한문화 刊)= 정신분석학, 의학 전문가인 지은이의 체험을 토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론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은이가 체험한 영적인 앎의 주관적인 상태에 대해 서술하고, 영적인 길이 무엇인지, 의식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마지막에서는 세계 각국의 영적인 탐구자들 및 단체들과의 강연, 대화, 인터뷰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이 실려 있다. 값 1만3천원.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최은영 옮김, 마주한 刊)=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병사들을 위한 '병사와 책' 시리즈 가운데 불교편. 부모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부모은중경〉(용주사 본)을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함께 싣고 있다. 병영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실로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이 책은 선물용으로 권할 만하다. 이 시리즈는 모두 20여권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값 6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2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법 공 양
3	현대관음기도 영험록	성 일	불 광
4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5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 진	운 주 사
6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7	꽃담	해 만	시 공 사
8	불교입문	조계종 편집부	조계종 출판사
9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	근본불교학교출판부	근본불교학교
10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그 누가 인생을 고해라 하였던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도 행복한 미래를 예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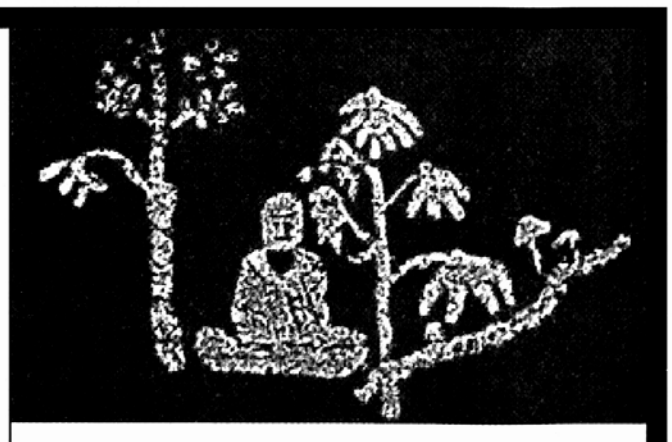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의 맥(脈)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김윤보 큰스님 편저
신국판 355면 값 10,000원

근심 보따리를 풀어놓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교는 자력으로 해탈하는 능력적인 종교입니다.
순간의 깨달음에 의해 원인을 찾게 되면 기도의 방편을 통해
스스로 지어놓은 전생과 현생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악업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준비, 작법, 작단법

3일기도, 이레(7일)기도, 3 · 7일(21일)기도, 49일(7 · 7일)기도, 가정에서의 49재 의식, 100일기도, 108일기도, 1,000일기도, 3,000일기도, 10,000일기도 / 재(齋), 영산재, 생전예수재, 7재, 49재, 사리탑 탑돌이기도, 마니주 · 마니륜기도, 법륜상돌리기기도, 금강저돌리기기도, 만다라작법기도, 사경기도 /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

【총판】 윤주사(02)3672-7181~5 【서울】 교보문고397-3587 서울문고6002-6002 영풍문고399-5635 종로서적733-2331 만나서적2267-7385 【부산】 고려불교예술원807-6842 부다가야865-4383 영광도서816-9500 부산도서517-1911 동방서적925-1318 【대구】 한일서적923-0781 삼영불교서점421-3980 파계사서점984-4550 【인천】 인천불교서점773-9086 【광주】 원각사불일서점232-7542 삼복서점222-0258 【대전】 보문불교서점253-6446 세종문고536-6700 【강원】 관음불교사642-8880 금강불교사743-7442 마하불교434-8446 여래불교사632-9004 원주불교사748-3993 월정사석경원332-9685 【경기】 만다라654-6656 목아불교885-9954 법보서적253-1055 대동서점449-4488 【경남】 보문불교서적741-6709 성주사불심원267-2623 정법불교사741-2683 제일불교서점742-8174 혜인사서점932-7473 【경북】 영광도서742-9133 포항문고249-4900 삼문사서점247-8412 학원사284-8250 대원서점770-2586 보송서점742-6607 불교서점749-1580 영주불교서점631-3940 경주제일서점742-9393 상주제일서점534-2377 【전남】 불일서점743-9672 송광사불일서점755-5305 운주사서점374-0668 화엄서점782-1125 【전북】 금산사서점584-1354 내소사서점583-7281 실상사서점636-3822 【제주】 동연마을721-4005 불교종합점755-9800 약천사서점738-5000 【충남】 동학사불서각825-7808 【충북】 구인사서점423-7100

기도의 불가사의한 힘, 그 작법과 방편을 낱낱이 모아 엮은 책!

도서출판 글 밭
TEL. (054)749-0650
FAX. (054)772-5344
E-Mail : glbatc@empal.com

※ 서점에서 미처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해 드립니다.